

멋진 야히코 마을 추천 코스



제일 먼저 야히코 신사



옆에 있는 경륜장에서
즐겁게 레이스 관전



경주권이 적중해도
안 해도 숙소에서 체크인



한가로이 온천욕



게이샤를 불러서 전통 무용을
즐기거나 편하게 쉬면서 보낸다.



다음 날은 야히코 신사의
아침 제사「오닛쿠사이」에 참석



체크아웃 후에 다시 야히코산
야히코가 사랑하는 천연수 [241]도 기념으로 챙긴다



산을 내려오면 야히코 마을에서 맛있는 점심과 즐거운 쇼핑

숙박 시설

시설명	전화 번호
旅館 清水屋 "Ryokan Shimizuya"	0256-94-2015
弥彦館 冥加屋 "Yahikokan Myogaya"	0256-94-2034
四季の宿 みのや "Minoya"	0256-94-2010
名代家 "Nadaiya"	0256-94-2013
みますや旅館 "Mimasuya"	0256-94-2109
ホテルヴァイス "Hotel Weib"	0256-94-5612
お宿だいろく "Oyado Dairoku"	0256-94-2026
割烹の宿 櫻家 "Sakuraya"	0256-94-2009
山本館 "Yamamotoakan"	0256-94-2061
上州苑 "Joshuen"	0256-94-2114
冥加屋ハウス "Ryokan Myogaya House"	0256-94-213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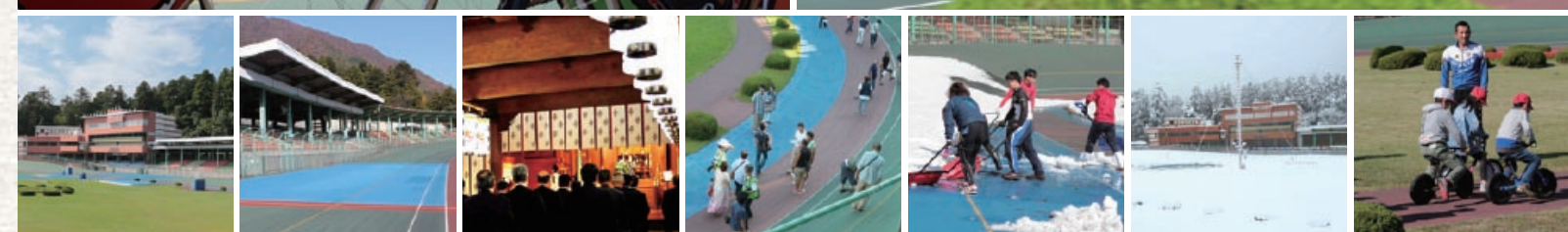
야히코 관광 안내소 0256-94-3154



이곳은 야히코의 멋진 경륜장



눈이 녹고 4월이 오면 5개월만에 다시 경륜이
시작된다. 야히코의 숲에 종이 울리고, 한 바퀴 400m
코스에서 승리를 향해 치열하게 싸우는 선수들.
자전거 달리는 소리, 레이스를 예상하고
경주권을 사서 즐기는 팬들의 함성.1950년
이래 수만 번 펼쳐진 정경들과 소리들의 향연.



경륜이란

한 바퀴가 400m인 야히코 경륜장의 경우에는 7명이나 9명의 선수들이 코스를 네 바퀴(약 1600m)에서 5바퀴(약 2000m)를 돌며 겨루는 자전거 경기. 관객 없이 하는 미드나이트 경륜을 제외하고, 하루에 10경주에서 12경주가 펼쳐지며 각 경기의 1착, 2착, 3착의 선수를 맞추는 등, 7종류의 승식으로 즐긴다.



전국에 있는 약 2300명의 선수들은 날마다 트레이닝에 힘쓴다.



레이스 전날

통지를 받은 선수들은 레이스를 위해서 컨디션을 조절한 후 경기 전날 야히코 경륜장을 찾는다. (대부분 토너먼트 형식의 3일제, 4일제) 몸과 자전거 상태를 검사한 후 가볍게 뱅크를 달리고 숙소에서 머문다.



드디어 레이스 당일
손님들도 경륜장으로 향한다

중소리가 울리면 남은 것은 한 바퀴 반이다. 보통은 이때를 전후로 선두원은 빠지고, 선수들 스스로 바람을 가르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. 마지막 홈에서 한층 더 질주한다.



시속 60~70km.



**이겼을까!
맞췄을까!**



마지막 4코너를 돌면 골까지는 63.1m의 직선코스. 야히코 경륜장은 이 직선이 길기 때문에 후방에 있어도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.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페달을 돌린다. 물론 팬들도 포기하지 않는다. 흥분은 절정에 달한다.

보고



생각하고
먹고
즐긴다



경주권 사는
법 + QR 코드



스타트

이속고 1열이 되어 달린다. 선두는 선수가 아닌 남색 유니폼을 입은 선두원이 달린다. 왜? 자전거경기는 선수끼리의 싸움인 것과 동시에 풍압과의 싸움이기도 하다. 전원이 공평하게 싸울 수 있도록 바람 막이가 되는 선두원이 먼저 달린다.



집중



긴장

